

거나 영원히 개봉되지 않을 끝없는 수수께끼일 뿐이다. 표면들은 객관적 대상의 표피가 아니라, 낱장으로 오려지고 붙여지고 꺾매지며 훑날리는, 심층의 비밀이 드러나 있지 않은 빈 공백이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은 경계 지대와 가장자리들이다. 들뢰즈는 사건들은 가장자리에서만 생성하고 증식된다고 말한다. 가시적인 것이나 개념적인 것은 들추어진 표면을 따라서 펼쳐진다. 심층으로 깊이 들어가는 대신,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끝없이 다른 방향으로 이행한다. 송명진의 작품은 깊이 아닌 넓이에서, 배후에 아무것도 없는 표면들 위에서 한계 지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 색채의 화음과 형태의 리듬

성낙희의 전시는 마치 재즈나 전자음악을 듣는 느낌을 준다. 전시된 16개의 그림이 110×130cm이거나 120×130cm의 캔버스로 되어 있고 화이트 큐브에서 다양한 높낮이로 배치되어 있어 설치

방식 자체도 리듬을 탄다. 그림에서 무엇을 읽거나 는 거의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화면을 채우는 색채의 리듬이 두드러진다. 유기체적이며 기하학적인 요소들이 미묘하게 결합되고 배열된 그림에서 제목은 비정형적 공간에 다가가는 열쇠가 되어준다. 전시 부제도 '변환(Transformation)'이다. 그러나 언어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말에는 거대한 심연이 놓여 있고, 이 막간의 공간에서 형태와 흔적, 색조들이 뒤섞이며 미지의 것을 생성한다. 〈꽃(Bloom)〉 〈상승(Rise)〉 〈도약(Leap)〉 등에서는 꽃잎이나 꽃씨가 날아오르거나 물방울이 튀는 듯한 이미지나 색이라는 조형 요소들에 실려 전달된다. 〈본드(Bond)〉 〈회전(Whirl)〉 〈흐름(Stream)〉 등에서는 조형 요소들의 밀도 차이에 의해 전진과 후퇴, 상승과 하강, 응집과 분산의 물리적인 운동감을 보여준다.

〈상승(Escalade)〉이나 〈속도(Velocity)〉는 기계



